

제 2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공모 당선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6.7.5 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2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응모자 3,264편의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7편, 장려상 10편, 입선작 20편등 총 40편으로 우선 최우수작과 우수작 2편을 이번호에 게재하였으며佳作 및 장려상과 입선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최우수작

나의 건강과 우유

서울명일국민학교
6~8 성혜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림은 갈수록 쪼들려서 어머니의 채소 장사 만으로 세 명의식구가 먹고 살기엔 힘들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유 배달이다.

그 때 나는 일종의 영양부족으로 몸이 쇠약하

여 달리기를 했다 하면 꼴찌는 도맡아 했고, 먼거리를 걸으면 어지럽기 까지했다.

내가 약한 것을 뻔히 아는 오빠는

“오빠! 같이 우유 배달가 응?” 하고 매달리면서 “난 힘들어서 안돼.” 하면서

번번히 거절하기가 일쑤였다.

어느날 오빠가 배달을 갔다오면서 우유 한 병을 가지고 왔다.

“그거 웬거야?.”

“응 보급소 아저씨께서 너 갖다 주라고 하시더라. 어서 마셔. ”

“오빠! 아저씨께 고맙다고 전해드려. ”

나는 우유를 받아서 맛있게 마셨다.

오빠는 매일 우유를 가져 왔고, 한달쯤이나 지났을 때 나도 모르게 새힘이 솟는것을 느꼈다.

그러기를 어언 1년, 내 건강이 우유덕분에 좋아진건 물론이고 달리기도 반에서 1,2위를 다투게 되었다.

내 달리기 실력을 인정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이백미터 선수로 뛰게 해 주셨다.

“엄마, 나 이백미터 선수로 뛰어요. ”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 우리 딸이 선수로 뛴다고? 그토록 약해빠진 내가 선수가 됐다니 너무 기쁘구나. ”

어머니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웠다.

오빠도 나와 같이 배달을 가자고 하였다. 내가 따라나서는 것을 반대하던 오빠도 시합에 나간다니 좋은 모양이다. 다음날 오빠와 같이 배달을 나갔다. 오빠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달리고 나는 뛰었다.

“시합이 언제니?.”

“12일, 5월 12일. ”

“열흘 남았구나? 열심히 해. ”

“응. ”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른 집을 다돌고 나니 온 몸에 땀이 주르르 흘렀다.

그리고는 보급소로 갔다.

보급소 아저씨께서 “어? 동생인가?.”

오빠에게 물으셨다.

“네. 달리기 연습을 한다고…….”

그래? 보내 주는 우유는 잘 먹지?.”

이번엔 내게 물으셨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

“열심히 연습하고, 자네도 수고하게. ”

아저씨께선 오빠 등을 툭툭치시며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일이 시합이다.

다음날 마음을 설레며 시합 장소로 갔다.

보급소 아저씨께서 우유를 잔뜩 가져다가 선수들에게 주셨다. 나도 한 병 마셨다.

어머니와 오빠도 나와있었다.

이백미터 뛸 차례가 되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려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다.

탕! 총소리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힘이 솟구치고 몸이 날아갈듯 가벼웠다.

드디어 난 1등으로 테이프를 끊었다.

어머니도 선생님도 오빠, 친구들, 보급소 아저씨도 모두가 만세를 부르며 기뻐해 주셨다.

서울시 대표가 된 것이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두 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셨다.

“장하다. ”

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다.

기쁨을 감추고 잠시, 곰곰히 생각해 봤다.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했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것과 생각도 못했던 1등의 영광을 우유 보급소 아저씨께서 1년씩이나 우유를 먹여 주신 덕분이라는걸 느낄 수 있었다.

보급소 아저씨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더욱 건강해서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다.

아시아는 86으로
세계는 88로!

서울 갈현국민학교

6~7 오유리

우리 마을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계시다.

‘딩동’ 오늘 새벽에도 어김 없이 우리집에 찾아오셨다

우리집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내가 대문을 열어 드린다

아줌마는 여러 집을 들렀다 오셨는지 손등으로 코 끝에 맺힌 땀을 닦으시며

“오늘도 유리가 우유 받으러 나왔구나.”

“예, 그런데 아줌마는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내리시는데도 힘들지 않으세요?” 나의 물음에

“이 우유를 배달을 한지도 10년이 넘어 선 탓인지 여기까지 오르내리는 데도 전혀 힘이 안 드는구나.” 아줌마는 얼굴에 얇은 미소를 띄우시며 바라보았다.

“아 참 몇 집 더 들러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유리아, 그럼.” 성급히 케링카를 몰고 가는 아줌마의 뒷모습을 향해 나는

“아줌마 차 조심 하세요.” 하고 말을 끝내자 케링카는 벌써 옆 골목길을 돌고 있었다. 나는 대문을 닫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니 어디 갔다 오니? 유리아.” 엄마는 쌀을 씻다 말고 나에게 물어 보셨다.

“우유 받아 가지고 왔어요.” 나는 냉장고에 우유를 넣으며 말했다.

“엄마, 그런데 우유 아줌마는 어디서 살고 계시요?” 나는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궁금한 모양이로구나. 아줌마는 산 중턱에 있는 한옥집에서 살고 계시단다.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아줌마는 그 적직함을 달래기 위해 우유 배달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붙여 준 이름이 우유 아줌마지.” 엄마는 쌀을 다 씻고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시면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다.

나는 내 방에 돌아와

‘우유 아줌마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날마다 밝게 웃으며 일하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다음 날은 공휴일이라서 우유 아줌마가 오지 않았다. 오늘분의 우유를 어제 한꺼번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 날 오후 나는 너무 따분해서 대문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앞으로 우유 아줌마가 지나가고 계셨다. 나는 “우유. 아줌마.”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아줌마는 케링카를 놓아 두고 내게 다가 오셨다.

“왜 그러니? 유리아, 무슨 일이라도 있니?” 하고 물어보셨다.

“아줌마, 오늘은 공휴일인데 어디로 배달 가시는 거예요.” 나의 물음에 아줌마는

“배달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일이 있어서…….” 하고 머뭇거렸다.

“아줌마 말씀해 주셔요. 어디 가시는지 말여요.” 하고 물어 보았다.

“정 궁금하면 따라오너라. 그렇지만 이것은

너만 비밀로 알고 있어야 해.” 나는 아줌마의 무겁게 보이는 케링카를 뒤에서 밀어 드렸다.

그러자 얼굴을 돌리시며 빙그레 웃으셨다.

아줌마는 내가 모르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좁은 길을 이리 저리 돌아서자 조그마한 집이 보였다.

앞에는 임마누엘 고아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케링카 바퀴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문을 열고 뛰쳐 나온 아이들이 우유 아줌마의 얼굴에 목에 등에 매달리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우유 아줌마는 자기의 아들 딸처럼 하나 하나 안아 올려주기도 하고 콧물을 닦아 주기도 하였다.

나는 멍하니 이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줌마에게

“아줌마, 여기 많이 오셨었나 봐요.” 나의 물음에 어떤 아이를 세수시키고 있던 아줌마가

“지금이 5 번째야. 이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죽은 내 딸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즐겁단다.

또 내가 오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말이야.” 아줌마는 아이들 하나 하나를 다 세수시키고 나더니

“얘들아,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우유 아줌마의 말에 아이들은 우루루 들어갔다. 아줌마도 케링카에서 무엇인가 가득 안고 뒤따라 가셨다.

집안에는 낡은 이층침대가 10 개 정도 놓여 있었고 여기 저기 장난감이 널려 있었다. 아이들은 누가 시키기라도 하듯 빙 둘러앉아 있었다.

아줌마는 케링카에서 꺼내온 비닐 주머니에서 우유를 하나 하나 꺼내 나누어 주고 계셨다.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벌컥 벌컥 우유 마시는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 왔다.

아이들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나의 의아해하는 얼굴을 눈치라도 채듯 아줌마가

“우리 애들은 다른 음식도 잘 먹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좋은 우유를 잘 마셔 모두가 튼튼하고 씩씩하단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고아원 문을 나서며 이런 생각을 했다.

‘우유 아줌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고도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저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보람 때문일 거야.’ 하고

나는 고아원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붉은 저녁 노을 빛이 케링카에 살며시 내려앉고 있었다.



나의 건강과 우유

서울 월정국민학교

5~2 김 하 경

“너, 또 우유를 강아지 주었구나.”

한들이에게 저녁밥을 주시던 어머니께서 하시

는 말씀에 나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강아지를 엄마가 굶길까 봐 그랬니?”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는 공부하는 척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앉아 있는 나에게 우유 한 컵을 따라 놓으시며 몹시 화를 내신다.

‘너석 칠칠맞긴……. 깨끗이 먹어 치우지 않고.’

나는 우유 찌꺼기를 들켜 버린 한들이가 알미운 생각이 들었다.

유난히 우유를 좋아하는 큰 언니와 작은 언니는 자기 몫의 우유를 다 먹어 치우고, 항상 내것까지 탐을 내지만, 그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안 돼. 몸이 약한 동생이 우유를 많이 먹도록 언니들이 도와 주어야지.”

하시며 언니들을 꾸중하시기 때문에 나는 궁리 끝에 먹다 남은 내 몫의 우유를 우리 집의 귀여운 강아지 한들에게 주기로 생각해 냈던 것이다.

한들이는 내가 준 우유를 맛 있게도 싫어 먹었다. 어머니께서는 이 일로 해서 심하게 꾸중을 하시고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완전 건강 식품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다.

나는 그 후로 다시는 한들에게 우유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도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를 위해 우유로 다른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우유를 넣고 만들어 주신 빵이나 과자는 엄마의 정성이 섞이고 무척 맛이 좋았다.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큰언니와 작은언니 이렇게 나만 빼 놓은 우리 식구 모두는 우유를 너무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매일 커다란 우유가 세 병씩이나 배달된다. 아침식사 후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우유를 마시는 우리 식구들은 편식까지 하면서 우유도 잘 먹지 않는 나 때문에 언제나 걱정을 한다.

“저 놈은 에미 젓을 늦게까지 먹더니 이렇게 기가 막힌 우유 맛을 아직도 잘 모른단 말이야.”

할머니께서도 마치 나를 약 올리기라도 하시듯 찹찹 일부러 소리를 내시며 우유를 드신다.

“우유도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것이란단다.”

아버지께서도 한마디 하셨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머리도 좋아지고 달리기도 좀더 잘 할수 있을텐데…….”

늘 달리기에서 꼴찌만 하는 나를 걱정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

나는 유난히 약한 나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차츰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식사를 끝낸 후에 꼭 우유를 한 컵씩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

내 몫의 우유를 남기지 않고 다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나는 아침마다 땀을 흘리며 줄넘기도 했다. 땀을 흠뻑 쏟고 나면 갈증이 나고, 갈증이 나면 우유를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차츰 밥 맛도 좋아지고 우유도 양껏 마시게 되었다.

습관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늦잠을 잔 월요일 아침 지각할까 봐 허겁지겁 아침밥을 먹고 학교길로 달리던 나는 꼭 무엇인가 있어 버린 듯한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집으로 뛰었다.

“아니, 애는 늦었다면서 다시 오니?” 어머니께서는 대문을 열어 주시며 답답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신다.

“왜 그러니? 급할수록 차근차근 얘기해 보렴.”

“내 우유 주세요. 내 우유…….”

어느새 눈치를 채신 할머니께서는 우유 한 컵을 들고 뒤따라 나오신다.

“이 놈이 이제 우유 맛을 단단히 알았구먼.”

할머니와 어머니의 호뭇한 표정을 뒤에 두고 다시 학교로 달리는 내 발걸음은 맨발의 마라톤 선수처럼 힘이 솟았다.

“이 놈아! 꼭꼭 씹으면서 가거라.”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내 뒤를 따른다.